朝鮮日報 朝刊
本紙每夕刊十二面

社說 都市住宅難과當局對策

一

現下朝鮮內에잇서서 各都市로의 人口集中은 急激히 進展되는데 不拘코 交通機關이나 衛生施設等은 거기 따르지 못하는 터이라 住民은 勿論이요 當業者들도 相當히 苦心에 苦心을 거듭하야 그 對策을 세우기에 汲汲하고 잇거니와 그中에도 住宅의 困難과 家賃의 暴騰은 各 都市人口의 太半을 占領하는 中産以下의 階級으로 하여금 生活上 甚大한 脅威를 늣기게 하고 잇스매 다른 問題보다도 이問題는 官民다함께 그解決을 急히 하고자 하는바다. 從來 朝鮮에서는 商工業의 發達이 大端遲緩하엿던까닭에 各都市의 人口도 急激한 膨脹을 보지못하얏슴으로 都市의 住宅問題를 比較的 等閑視하야 이때것 거기對하야는 何等의 法令도 實施된것이 업섯스나 本來 都市에잇서서 住宅問題란 農村에잇서서 耕作地問題나 마찬가지로 重大한 것일뿐더러 지금과가튼 現狀으로서는 各都市住民의 生活을 脅威하고 잇는 同時에 그 都市自體의 發展조차 阻害하고 잇는터인즉 거기 對한 對策의 講究는 오히려 臨渴掘井의 늣김을 주는바 업지 안타.

二

何如튼 都市의 住宅問題를 解決하는데는 公營住宅을 만히 建築한다든지 住宅의 建築資金을 圓滑케 한다든지 하야 膨脹하는 그人口에 相應하도록 住宅의 增築을 도모하는 그以上이 업스므로 總督府當局에서도 方今 公營住宅案과 住宅會社案等을 成案시키고 잇다고는 하지마는 俗諺에 이른바 長鞭이 馬腹에 미치지못하는 格으로 그로써 當場高價의 家賃아래 困難을 겪는 多數의 人口를 救急하는 方略이라고 볼수업는 일이다. 그동안 家賃은 한번 貸借의 契約이 바꾸일때마다 一割乃至二割이 올라서 事變前보담 近十割의 引上이라고하니 事變以後 모든物價가 오르기는 올랏다고 하더라도 家主에 잇서서는 이미 投下한 資本에對하야 暴利를 圖得하려는것이니 時局의 非常함을 應知하고 自利에만 눈이어두운 行動임에 틀림이 업다. 지금 當局에서는 總動員法第十九條를 發動하야 그들을 抑制코자하는 한편 위선 事變前水準으로의 自發的引下를 勸誘하리라고한다. 이와가튼 當局의 態度는 가장 時宜에 適切하고도 處事에 愼重하야 우리로하여금 贊同함을 禁치 못하게 한다.

三

商人으로서 利를 도모하는것은 누구나 承認하는 바인것가티 家主로서도 되도록 家賃을 올리는것이 何等의 責할바 아닐지 모르나 지금과 가튼 時局에잇서 暴利에만 눈이어둡다는것은 國家的으로 보아서 실로 容納되지 못할일이다. 經濟警察의 制度를 實施하야 商工業界의 取締를 嚴히 한다고할것가트면 不當한 高價의 家賃도 어떠한 法令으로서든지 取締치 안해서는 안될것이다. 그러나 人間社會란 오직 法令으로서만 充分하게될것도 아니요 또 法令만을 唯一하게 일것도 아니다. 여기서 各都市의 모든 家主들도 冷靜히 現下의 時局을 생각하고 自己네 行動의 過誤를 校正하야써 當局의 努力하는바를 圓滑히 實現되도록 하야 주기바라서 마지 안는다.

廿個師敵大軍包圍 一大殲滅戰展開

空陸呼應總攻擊開始

【漢口八日發同盟】五日鐘祥을一擧히 進發한 我山田、南部、古賀、後藤各部隊는 漢水東岸에沿하야 所在의 敵을 擊滅하면서 迅速한進擊을거듭하야 八日朝드디어 敵第五戰區의 根據地襄陽東方二十키로의 廣山、襄陽公路上의 要衝○○을占領하고 京漢線漢水中間에 據하는 五戰區의 主力約二十個師의 退路를完全히 遮斷하고 또 漢水東南進擊部隊에 呼應하야 京山鐘祥公路北方의 大洪山脈의 峻嶺을利用하고 逆八字形陣地에據한 敵에對하야 我吉田、里見、倉林其他의 部隊는 五日 孫橋鎭附近에서 猛進擊에옮기어 壯烈果敢한 山岳戰으로 三晝夜에 七日드디어 敵의 抵抗線을 粉碎하고 八日朝 余軍鐘祥 東北六十키로의 線에 進出 다시 數日前부터 淅河市 北方의 敵陣地에 對하야 連日猛攻을 거듭하고잇는 澤山、金田、吉井、加藤、松枝、鈴木各部隊는 七日敢然敵陣地線을 突破하고 八日朝來西北으로 潰走하는 敵을 追擊하고잇다 이로써 我軍은 襄陽東方約二百키로에 達하는 大包圍網을 形成하고 江北의 하늘을 덥고 亂舞하는 陸荒鷲의協力下에 敵二十個師의 大殲滅戰을 展開하엿다

【上海八日發同盟】中支軍報道部八日午前十一時發表=李宗仁、湯恩伯麾下第五戰區의 將兵約二十個師의敵은信陽北方地區로부터 鍾祥北方地區에잇는 峻嶺險要에 依據, 數線數帶의 陣地를設置하고 我軍이 攻擊치안흠을 機會로 各方面으로부터移動集結하고『攻勢』를 豪語宣傳하야 內外를欺瞞, 只今 이것抗戰力이잇는것가티 宣傳하고잇다함은 이미 發表한바이다 我軍은 敵의動을 그대로 縱放할것만 捕捉殲滅코저 準備를 하고잇는바 敵軍이 委縮되는 機會를타서 먼저 信陽 淅河市附近線으로부터 攻擊 淅河市以西 漢水에 이르는 全線에서 呼應하야 攻擊中이다 我新合勢部隊는 一擧에 縱深二十數粁에 亘한 敵主陣地帶를 急襲突破, 空陸으로부터 委靡潰走하는 敵을 擊退하면서 目下各方面이 모두 追擊中으로 我第一線은 이미 七日夜에는 棗陽東南地區로 進出中이다

【漢口八日發同盟】中支軍午前十一時發表

軍은 第五戰區의 敵主力을 차저 이를○滅하고저 信陽 淅河市附近地區뿐아니라 淅河市以北 安陸(德安)漢水에이르는 全線으로 攻勢에轉하야 空陸이 서로呼應하야 到處에서 敵을擊破하고 七日夕刻까지에는 ○滅戰의 戰略的態勢를形成하엿다 要塞이 甚하나 將兵의 士氣는極히 旺盛하다

數萬共軍包圍猛攻

第二次五臺山敵掃蕩戰

【太原八日發同盟】靈地五台山을 中心으로 附近一帶의 峻嶮한 山岳地帶에 蟠居하야 我後方攪亂을 企圖하고잇는 賀龍麾下의 共産軍第一二○師三百五十八旅 三百五十九旅 金憲章의 新編第二師及獨立一個旅約三萬을 一擧掃滅하고자 我久世 松井 鮫野各部隊는 八日早曉 猛然猛攻을 開始하엿다 即久世 松井兩部隊는 ○○을 進發 所在의 敵을 粉碎하면서 疾風과가티 東進을 繼續하매 野部隊도 北方으로부터 이에 呼應하야 怒濤와가티 進擊하고 一方○○、○○我精銳部隊는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자 衝天의 意氣를 가지고 出動態勢를 取하얏다 이리하야 五台山을 中心한 敵地는 完全히 我包圍下에 빠지게되엿다

【太原八日發同盟】五台山을 中心으로 蟠居하야 山西河北省境을 넘어 京津地方을 괴롭게하고 잇던 第八路軍 獨立第二賀龍軍下의 第百二十師 三百五十九旅及 山西土着의 保安隊等 約三萬의 敵에 對하야 그根據地인 五台山地區를 覆滅하야 徹底的으로 掃蕩하고자 周到한 作戰을 하고잇던 我佐佐木 川崎 黑崎、中村(義)猪形各部隊의 精銳는 八日未明 一齊히 行動을 開始하야 第二次 五台山攻擊戰을 開始하엿다 勇士들은 標高一萬尺에 가까운 峻嶮한 山頂을 넘고 물이 마른 깊은 數十尺의 谿谷을 지나 太陽이 보이지안흘만큼 불어오는 山西特有의 黃砂를 무릅쓰고 進軍을 繼續하고 잇다 이山岳地帶에는 멧달이나 비를 보지못한 黃土가 堆積해잇스므로 樹木이라고는볼수업는 이山에는 旋風이불때마다 黃塵이일어나서 勇士들을괴롭게하고잇다 이러한 難中에 聖地五台山을 指目하고 ○○健兒의 進擊은 第一次五臺山作戰에 比하야 훨신大規模의 것이다

山西各地掃蕩戰果

【太原八日發同盟】山西各地에 ... (illegible)

總力戰準備如何가 戰爭의勝敗를決定

陸相所信을披瀝協力을要望

地方長官會議席上

【東京電話同盟】八日地方長官會議에서 板垣陸相의 訓示要旨는如左하다 今次事變의 本質과 이에 對應할 今後方針에 對하야는 數次에 亘하야 帝國政府或은 總理大臣의 聲明等에 依하야 諸君은 이미 熟知하고잇는바로 只今 다시 贅言할必要가업는터이나 對支戰의 消耗에 耐堪하면서 帝國現下의 目標인 軍備充實과 經濟力擴充을 同時에 遂行함은 難事中의 難事라 할수업슴은明白하다 本官은 皇軍使命의 重責을 생각코 全軍將兵의 精勤을 要望하야 軍의 精强을 圖謀하는 同時에 各位의 適切한 指導에 依하야 國民의 協力을 어더 할것으로 所謂擧國一致 不屈不撓의 努力을 傾倒하야써 全國을 統合發揮치안는다면 그目的을 達成할수업슬것임을 期하고 이 難局을 打破할것을 期하고 이에 陸軍의 所信을 披瀝하야 各位의 協力을 要望하는바이다

一、時局의 推移에 伴한 帝國陸軍軍備에 對하야

蔣政權은 繼續的 敗戰에도 不拘코 아직 執拗한 抗戰을 繼續하고 잇는데 그原由를 觀察하면 蘇聯及英佛等의 援蔣이 잇고 다시 現下國際情勢의 險惡逼迫에 鑑하여볼때에 今後 我大陸政策을 遂行함에는 그中核인 軍備擴充에 對하야 一層眞劍한 檢討를 加하야써 事變을 解決함과 同時에 國際情勢의 轉機에 應할 態勢를 急速히 完成하여야하겟다 即今後에 잇서서의 我陸軍軍備의 本質에 對하여는 大陸國防에 應하는 軍備充實로써 帝國國防의 樞軸으로하는 見地에서 今後兵力量의 增大及重點의 大陸移動은 必至인 感이잇서 特히 訓練의 精到와 軍紀의 振肅을 圖謀하야 出師準備의 完璧을 期하고 잇는것이다 特히 今後에 잇서서의 軍의 成果如何는 今日 그 構成要素인 青少年國民의 物心兩面에 亘한 素質의 向上에 잇고 他面如斯한 大兵力의 維持를 保有시키기 爲하야 人的 物的資源의 擴充供給이 不可欠의 要件으로되어잇다

二、總力戰體制確立에 對하야

過去의 戰爭에 잇서서는 武力戰의 勝利者는 即戰爭의 勝利者이던 事情과 달라 今後에 잇서서의 戰爭의 勝利는 國家總力戰의 本質을 的確히 把握하야 速히 이것을 準備하고 이것을 實行하는者에게 歸하게되는것은 이미 各位가 認識하는바로서 現下의 歐洲에 잇서서의 獨伊를 圍繞한 國際諸情勢에 對하야보아도 이미 明白한것이다 그리고 總力戰의 規模擴大에 따라 그組織計畫準備에는 相當한 年月을 要할뿐아니라 總力戰의 本質은 必然的으로國家의 存廢를 賭하는 所以인것 總力戰의 準備가 即戰爭 其自體의 勝敗에 影響이잇는것 또는 現在의 國際情勢로보아 그充實을 圖謀하는것은 喫緊의 要務이다 總力戰體制의 强化確立에依하야 비로소 現下事變解決을 迅速容易케하는 同時에 今後豫想되는 國際情勢의 轉機에 處하야 第三國等으로 하여금 我國策의 遂行、東亞新秩序建設에 對하야 干涉妨害를 加할餘裕가 업게할수잇슬것으로 이를爲하야는 全國民은 不退轉의 決意를 가지고 如何한 困苦缺乏에도 견디어 써國家目的으로 向하야 一致邁進하여야하겟다

三、軍事扶助徹底와 國民團結의强化에對하야

(略)

(寫眞은 板垣陸相)

聖業達成에邁進

米內海相訓示要旨

【東京電話同盟】八日의地方長官會議에잇서서의 米內海相의 訓示要旨는 左와如하다

昨年의 本會議에서 支那의 長期抗戰에 對한 海軍의 決意와 覺悟를 披瀝하야 各位의 協力을 要望한以來 各方面의 作戰에 모든 努力을 傾注하야 크게 戰果를 擴大하는 同時에 其間 軍備內容을 充實히하고 東亞에 잇서서의 制海權을 完全히 把握하야 써 援蔣各國의 實力的 壓迫의 企圖를 未然에 封塞하여 왓는데 帝國이 毅然 그 所信을 斷行하야 東亞新秩序 建設의 聖業完成에 邁進할수잇는것은 이 海軍의 嚴然한 無言의 威力에 依하는 바가 크다 할것이다 世界情勢는 大變하야 國際關係가 緊迫을 告하고 緊急한것은 今日에 잇서 極度에 達하엿다고하여도 過言이 아니라고생각되는바 이로써 列强諸國은 모두 軍備擴張에 狂奔하고잇는것이다 此間에 處하야 帝國海軍으로서는 前述과 如히 聖戰目的의 貫徹을 爲하야 海軍軍備充實의 急務를 알고 銳意努力을 하고 잇는 바이다 바야흐로 事變第三年에 들어와 武力、經濟兩戰力의 强化는 一去益緊要하게되어 眞實로 國家總力戰으로되엇다 前線과 銃後를 不問코 所謂軍民一致官民一如 興亞의 大業遂行에 邁進하여야하겟는데 各位는 時局의 一去益重大함을 確認하야 地方民의 指導에 遺憾업기를 期하라

(寫眞은 米內海相)

謁見吩咐

마하라자殿下께

【東京電話同盟】今般來朝한 印度가를라리州마하라자殿下는 令息과함께 八日午前十時半 英國大使와 同伴參內 鳳凰間에서 天皇陛下께 謁見하고 敬意를奉表하엿다

南總督參內

【東京電話同盟】南朝鮮總督은 八日午前九時宮中에參內 天機奉伺의記帳을한後 各宮家에伺候 上京人事를 言上한다음 明治神宮 靖國神社에參拜 正午官邸에서 小磯拓相과會見 午餐을함께한後 中央諸官廳 朝鮮統治問題等에 關하야 各種으로 懇談하엿다

各遞信局長에 賜謁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八日午前十時 遞信局長以下 十三名에對하사 鳳凰間에서 賜謁하옵신다

首相人事

東亞新秩序建設엔 現狀打破가最急務

【東京電話同盟】平沼首相은八日首相官邸에서열린 地方長官會議에 特히出席하야 今番 支那事變과 國際情勢의 關聯을 闡明하야 東亞新秩序建設의 根本方針으로서 現狀維持打破를强調하야 如左한人事를 述하엿다 今番事變은 世界의情勢와 密接한關係가 잇는것으로 이를分離하야 解決할수는업다 나는 從來의觀念에依한 現狀維持的方略으로서는解決을 期할수업다 國內에

物資輸入은 益益困難하게 되엇슴에도不拘코 國防力充實 生産力擴充은 이를 하지안흐면 안될것인즉 自給自足의 大方針으로써 進行하지안흐면 안된다 따라 此際에 官民은모두 異常한 決心과 覺悟를 가지지 안흐면 안된다 따라서 政府의 諸施策에 關하여도 中央과 密接한 連絡을 取하야 實行第一主義로 나가지 안흐면 안된다 國民精神總動員도 亦是 뚝가튼 決心을가지고 必要하다 이運動은 時局의 收拾과 國家存立關係로보아도 極히重要한것인즉 議論을하는것은조흐나 한번 決定된以上은 斷乎實行하야 效果잇기에 專念하기바란다 따라 地方長官은 이方針에 依하야中央에서決定된 基本方策의 實施를 期하기바란다

(寫眞은 平沼首相)

人事·集會

◇長谷川氏(京城府土木部長)同 山、大阪、名古屋、東京、新潟 各都市水道施設、視察次 八日부터二十日까지 內地出張

辭令

(八日附發令)

任總督府判事(七等) 補釜山地方法院判事 佐久間 啟
任總督府判事(七等) 補京城地方法院判事 谷川 八郎
任總督府判事(七等) 補大邱地方法院判事 平岡 省平
總督府判事 山下 秀樹
兼任總督府高等海員審判所審判官
總督府判事兼總督府高等海員審判所審判官 (三等) 山根 [illegible]
免兼官
(京畿道)總督府道警視 野村 [illegible]
陞敍高等官四等
(全北)朝鮮産業技師 安東 直
陞高等官四等待遇
(慶林)總督府技師 大司 [illegible]
(釜山)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 森田 [illegible]
(京畿)同 川內 [illegible]
依願免本官(各通)
拓務次官 田中 武雄
總督府事務官 李 源 [illegible]
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委員被命
總督府實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委員被命
命第一部員及第二部員
總督府事務官 金 秉 [illegible]
總督府實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幹事被命

第五回產業視察團募集

滿洲와 北支는 朝鮮과 不可分의 關係에잇다。地理的으로 三者가 陸續해 잇는것은 말할것도업고 歷史的으로 或은 一國家를 形成하기도하고 或은 一民族의 活動舞臺가 되기도 하엿다。過去가 그러햇슬뿐아니라 現在는 一層 關係의 甚大한것을 느끼나니 滿洲國의出現 中華臨時政府의 誕生은 大陸進出의 兵站基地가 되는 朝鮮으로서 密接不可離한 關係에 잇다。그러므로 朝鮮에사는 사람치고 누구나 滿洲와 北支에對한 認識을 기피할 必要를 느끼거니와 産業的 方面에 잇서서는 刮目하야 期待할바잇스니 朝鮮의 바다다른 經濟的活路를 開拓할곳은 滿洲及北支박게 업스므로써다。보라 저 曠漠하고도 肥沃한 滿洲平野는 朝鮮의 資本과 朝鮮人의 開畓技術을 要하지안흐며 大陸國인 北支는 朝鮮의 海産物 特産物을 希求하고 잇지안는가。建設期의 滿洲産業에 朝鮮人의 參畫할도 어떠요 北支와 朝鮮間의 産業的 物貨交易도 어떠부터 始作되어야한다。本社는 年年 産業視察團을 海外에派遣하야 發達된 産業을 우리社會에 紹介하므로써 朝鮮産業發展에 貢獻한바 잇거니와 今年에는 滿洲及北支에 青島、濟南을 더加하야 視察知識에 더一層 收穫이 잇기를 期하는바이다。江湖諸氏의 發奮參加를 望하는바이다。

規定

視察地 延吉、敦化、吉林、新京、哈爾濱、奉天、撫順、北京、天津、濟南、青島、大連、旅順等 滿洲及 北支의十三個都市

期間 五月二十五日부터二十二日間

旅費 四百五十圓(車二等、夜間寢臺旅館一流)

(一日納入한 金額은如何한 事情을不拘하고 返還치아니함)

募集人員 二十五名

參加方法 五月二十一日까지 壹百五十圓을 本社事業部에納入하고 나머지는 出發前日까지完納함

主催 朝鮮日報社

反戰策動에依한 治安攪亂을嚴戒

法相、刑事實務家會議서訓示

【東京電話同盟】刑事實務家會同에서의 鹽野法相訓示要旨는 如左하다 共產主義 其他左翼分子의 反戰活動에 依하야 反戰反軍 其他어떠한 形態로 治安을 攪亂하려는 策動이 各地에 ... 各位는 ... 治安維持에 萬全을期하기바란다 ... (partly illegible)

遞信分掌局長會議

遞信局에서는 來二十四日부터 三日間京城 釜山 元山 平壤各遞信分掌局長을招集하야 遞信事業會議室에서 遞信分掌局長會議를 開催하게되엇다 第一日인二十四日은會議劈頭 總督又는 政務總監의訓示 遞信局長의 訓示가잇슨後 諮問事項 時局에鑑하야事業運營上特히 緊急處理를 要하는 事項

遞信局長會議 第一日

【東京電話同盟】遞信局長會議第一日은 八日午前十時半부터 本省會議室에서 開會되엇는데 小松大阪遞信局長以下 各遞信局長과 山田朝鮮遞信局長外地關係官 本省側의田邊遞相、平川、大和田 兩次官 上田參與官各局長等出席下에 田邊遞相으로부터 訓示가 잇섯다 이에對하야 森島東京地方遞信局長으로부터 答辭가잇슨後 大和田次官으로부터 諮問事項 物資와 勞力이欠乏한 現狀에 잇서 遞信行政上特히 改善方策

遞信辭令

(八日附發令)

命元山郵便局在勤 [illegible]
三陟郵便局長 同 入澤 茂雄
命咸興郵便局保險課長
鏡城郵便局長 同 山下 辰次
命三陟郵便局長
江陵郵便局在勤 同 坂元 [illegible]
命鏡城郵便局長
安東郵便局長 同 小池定次郎
命群山郵便局通信課長
群山郵便局長 同 小田喜三郎
命安東郵便局長
京城郵便局在勤 同 木下 忠六
命群山郵便局通信課長鏡城郵便局長 古賀 芳郎
命元山郵便局臨時在勤淸津飛行場長事務取扱 技手 山內[illegible]
命光州飛行場長事務取扱
航空課勤務 技手 石田 [illegible]
命淸津飛行場長事務取扱

恐る可き血統遺傳とふる血

白痴나不具兒는 웨낫케될가!

大飮酒家의아들에白痴와不具兒가만타, 그러치안트라도低能으로서學校의 成績이劣等하며下良해서警察의신세가되며, 어제트家庭悲劇의 原因을짓는일이만타그것은 어제그러나하면, 酒毒때문에 血液이濁하야古方醫學의所謂「瘀血」이되며 따라서生殖細胞가變形되야惡質遺傳子를맨드는故로낫는아들에惡影響을밧는것이當然한일이다, 特히感染病毒等이덥치면더욱惡質로되야, 子子孫孫에까지, 禍를끼치게되므로 正當한責任인父親된자, 크게考慮할것이아닙니까.

머리가황홀·肩臂痛
上氣症、眩暈과吹出의苦痛
밤잠못자고手足이저린분
瘀血의탓이다

病毒 酒毒의瘀血을버려 좃은아들을낫는新研究

머리가황홀吹出에苦痛한 오래된遺傳病毒이快方의
東京·向島·寺島(職工) 山川幸一

排毒과順血에
フルチ錠

古醫學에서再檢討
病毒排除 血液循環とふる血療法
無代進呈

申込所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二ノ二 古醫學研究所

ネオトン

適應症 呼吸器疾患、神經衰弱、貧血症 腺病質、食慾不振、産前産後 榮養障碍、病後恢復期

包裝 小瓶 中壜 大壜

效果本位

ビタミン榮養素攝取에、結核의豫防과治療에、食慾의增進에、世界的强壯劑 ネオトン!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米國紐約·台北·天津

(全國有名賣藥店販賣)

亡命時의奇緣! 守護神은林將軍

조기잡이도林慶業將軍손에비로소始作되어 三百年來擧島致誠밧는祠堂

本社特派記者 沈貞燮

남한으로 자리를잡은 어성의포마다 조기잡이 때가되면 [간산모 구에는 서해에서몰려오는 바닷바람과 물결을막기위하야 기리삼백미돌이 넘는 방파제(防波堤)가 자리잡혀잇고 방파제가잇는 산미테는 조난자의위령비(遭難者慰靈碑)가 서잇다 거치른 풍랑이 심히 일때는 폭군로 파선해온배까지 뒤집어노는일이 잇다 지난소화팔년의 무서운 폭풍은 그러케 튼튼해보히는 방파제를 두로막에 끄러버리고 풍랑에쫏겨 포구로몰려드든 어선천여척을 한척도아니남기고 뒤집고 파선시킨일이 잇스니 예로부터 지금까지 조기잡이 희생을당한 어부가 얼마나될지 알수업시 섯사람들은 이바다의 모지작난을 모괴할도리업시 해

신로가는 풍습이잇다 포구뒤 산허리에잇는 조선의 명장 임충민공장군(林忠愍公慶業)을 모신 사당(祠堂)에 참배하는것을 산모시로간다고한다 산모시때는 가진제물을 다차려가지고 자기배에 소속한어부는 모두 참석하야 바다로 조기잡이 나가는 뜻을고하고 무사히 조기만히 잡히게해달라고 빌고떠난다 바다에서들어와도 산모시로간다

◇…◇

임장군의혼은 이섬을 지키는 수호신(守護神)이 되어잇다 그러면 임장군과 연평섬과는 어떠한연게가잇슬까 인조(仁祖)대왕때의 임장군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삼백년전 일이다 당시 이웃나라 청조(淸朝)가 명조(明朝)의 뒤를이어 지나통일을 꾀할때 임장군은 명나라조정에 밀사를보내고 잇섯다 그뒤 이사실이발각되자 임장군은 몸을피하야 명나라로 도망하고저 중으로변장을 하고 서쪽으로 도망하였다 상인들과 평양·경성을 거처 마포(麻浦)를 들러나가 인조이십일년이엿다 이때가

어서 임장군은 배를타고 바다로나가 연평섬에 닷게 되엿다 생선잡는법을 가르처 주엇다 ... 어부들은 지금까지도 임장군을 생각하야 이섬 사람들은 어부들의 생명을 구하야 준 신이라하야 뫼시는것이다

◇…◇

연평섬에 오른임장군은 그때 섬사람들이 물로만 살아가는것을 보고 가시나무를 꺽거 다 바다에 꼬저두엇다가 조수가 빠진뒤에 가보니 가시마다 조기가 걸려잇섯다 이것이 조기잡이의 시초가 되엇다고 한다 이래서 임장군은 섬사람들에게 은인이 되엇고 지금은 배마다 선주가 봄 조기잡이때에는 마지막 임장군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떠나는것이다

(사진은 임장군의사당과 잡아온 조기떼)

兄弟냐? 아니냐?

尹致旲氏의尹雄烈氏庶子確認訴訟事件新展開

尹致昊氏蹶然登場 否認表明코訴訟參加

理由書提出·今日口頭辯論

지난달십구일 부내 내자정(內資町)일백이십칠번지 윤치경(尹致旲)(五二)씨가 변호사방승모(朴勝維)씨를 대리인으로 경성지방법원에 자기는 한말(韓末)거족 윤웅열(尹雄烈)씨의 서자임을확인하여달라는 소장을 제출하엿다함은 기보한바로 이 사건의 제일회 구두변론이 구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상기(李相基)판사담임으로열린다 그런데 말일 경성지방법원에는 부내 견지정(堅志町)일일번지 윤치호(尹致昊)씨로부터 이소송이 검사의 패소로 도라가면 윤치호씨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생김으로 소송에 참가케하여 달라는 소송참가신립이잇섯다 그내용을보면 원고의 주장을 전부부인한것으로 다음과가티 세조목으로되어잇다

◀명치이십오년전 전남화순군능주면(和順郡綾州面)에서 한남희(韓南熙)가 윤웅렬의 소실이 된일은 업고 하인으로잇섯스며 그후서울로 따러와서 상노(床奴)신해일(申奉一)과 가치살엇다

◀민중전(閔中殿)사건에 연좌되어 명치이십구년 윤웅렬일가가 피란하엿다는것은 사실무근이며 금년일월 광주(光州)지방법원에서 원고와 신래일간의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을하야 원고의 승소가된사건은 호합(馴合)소송으로 서로짜고 이른킨소송이다

◀이상 두조목을 다인정한다치더라도 한국시대에 부정간에 출생한 자식은 부친의 인정이업시 서자가될수는업다 따라서 윤웅렬은 생존하여잇슬때 원고를 서자로 인정하엿거나 또는 원고의 주장과가티 한것이다

『못나도제姓을』 原告 尹致旲氏 談

오늘 소송참가신립서를 바다보고 가슴이맥혀서 말이잘안나옵니다 제가여덟살때 동네사람들로부터 「너는 서울로 가야한다 서울서 사람이 너를 데리러 올터이니 빨리준비하라」고 하는말을듯고 그때는 무심히 지낫습니다 서울양부인 신래일씨는 윤웅렬씨가 사람을 두번씩이나보내서 나를올려보내라고 하엿스나 미천한 지위에 잇는놈이라 이며렬을 복종하엿다가는 보이지안는세력에게 회롱을당할가보아 모른척한것입니다 못나도 제성을 따르는것이지 나이 오십에무슨망영이나서 남의성을 따르려고 집안망신을 돌보지안코 소송을 일으키겟습니까 다만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제생모의 신분이 미천하야 윤웅렬씨의 측근자들이 집에드리는것을 반대한 모양입니다 나는 우리가문의 불명예스러운 일이므로 그간 오륙차 업는노자를 변통하야가며 서울로와서 친형님과 해결을하려고 하엿지만 뜻대로되지안앗습니다 윤치호씨가 제형님이라는것을 입증할만한 인물들이 점점 업서저가므로 드디어 본의아닌 소송을 일으킨것입니다

…부인하는 윤치호씨……주장하는 윤치경씨…

"訴訟을이르키는 뜻은딴데잇는듯하다"

訴訟에參加한 尹致昊氏 談

내 선친께서 작고하신지는 근사십년이나되는데 지금와서 내가 서자요한들 누가알게습니까 만일그것이 사실이라하면 벌써 말하엿슬것이지 드러도 유치경이라는 사람이 선친의 사리거실동안 시골서 자라고잇섯슬거니 다려오려면 어이 못다려와겟습니까 소송을 일으킨 뜻이 다른데잇나봅니다

구두專門竊盜

칠일오후여섯시 돈의정(敦義町)여일(日田)전당포에 구두를 수십켜레 들려메고 잡히려온사나이를 종로서원이 검거하여다가 취조한결과 그는 전남 함평(咸平)군 동(東)면 나한영(羅漢永)(三二)이라는자로 큰여관으로 도라다니면서 손님의 구두를 여러켜레를 훔쳐 가지고 아시에서팔기도하여 온것이다

버쩍느는鐵道事故

非常時、運輸가이래가지곤안되겟다고

鐵道局、事故防止를積極督勵

철도의 여객과화물이 무척만히 늘어감에따라 사고가 만히 생긴다 요즘에 철도국에서수집한 수자를보면 작년사월부터 금년삼월까지 한해동안에 여객사고는 오백사십육건이고 그가운데서 제일만흔것은 사상(死傷)사건으로 일백팔십삼건이며 그다음으로는 부정승차(不正乘車)사고로 일백칠십일건이며 셋째로는 도난사고로 팔십팔건이며 또 하물사고는 소위 멸실(滅失)훼손(毀損)등 제일급사고만으로도 작년사월부터 금년삼월까지 합계오천오건인데 그가운데서 가장 만흔것은 계수부족사고로 일천삼백이십오건이며 셋째로는 부착(不着)사고로 팔백삼십일건이며 파손소실등사고도 상당히 만흔가운데 모두 전년에 비하야 비상시철도수송에 이와가티 자꾸사고가 늘어서는 안될일이라하야 아프로는 사고를 적도록 노력하기로되엿다

治維法違反事件 木浦檢事局送局

【木浦】작년십일월경에 장흥(長興)경찰서에 검거된 장흥군장흥면내양리(長興郡長興面內楊里)김현직(金鉉直)(三)과 동군관산면죽교리(同郡冠山面竹橋里)정종규(丁鍾圭)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피의사건은 그동안 취조를계속하고잇섯바 이지음드대 취조를 마첫스므로 일건서류와함께 지난사일에목포검사국에송국되엇다

陸軍志願兵 祝賀激勵宴 (어제경회루에서)

中小工場의苦衷

이래저래 技術者차례 안와서

生産擴充에도影響至大

기술공양성령(技術工養成令)은오는팔월부터 실시하기로 되엇는데 이기술공 양성기관인 공장은 직공이백명이상이잇는 공장이고 또이대공장에서 양성을밧든 기술공은 역시대공장으로 대개배급될모양이므로 중소공장에서는 기술공을 여간해서 구경도하기어려울형편이다 그리하야 중소공업자들이 비명을올리는것은물론 총독부에서도 중소상공업의 발전을저지할뿐아니라 현하중대시국에 중대한관계를가지고잇는 생산확충에비상한 타격을 밧게되므로 여러가지로 그대책을 강구중이다 중소공장이 서로 연합하야 기술공양성기관을 설치하고 중소공장에만 보낼 기술공을 양성하거나 그러치안흐면 공업협회(工業協會)속의공장양성기관을 확장하야 중소공장전용의기술공을 양성하거나 두가지 방법밧게는 다른도리가업다 총독부에서는 기술공양성령이발포되기전에 이양대안(案)을 다시연구하야 구체안을 작성하야가지고 중소공업 발전과 생산확충에 유감이업도록하기로되엇다

傭人社宅九千戶

本宮日本窒素會社新築計畫

人口五萬의大都市로

【咸南支社發】일본질소회사의본거인본궁(本宮)은 군수경기의 팽창과 파도를타고서 본궁에 그본거를둔 일본질소회사에서는 금년부터 수개의 대규모공장의신설로 방금착착그준비를 하고잇는중인데 이 회사의 용원(傭員)들의사택을 용흥리(龍興里)일대에 대대적으로 세우기로되엇다고한다 즉 그회사에서는 용흥일대의기지 육십만평나머지를 새로 매수하고서 금년부터 매년계속하야 일동(棟)에 이십호씩 거주할사택을 오십오동 즉 일천일백호 그리고 일동에 사는사택을 건축할 계획이라는데 이와함께 유정리(柳亭里) 송호리(松湖里)에 약천평의 공장을 신설하기로되엇다고한다 오개년후에는 오만여명의 인구를 가질 대도시가 출현하게 될것으로 함흥 흥남 본궁을합하야 실로 이십만이상의 공업도시로 화하게될것이라고한다

地方社會主事 現地研究會開催

전시하 농산어촌에 생기를 어너허주고저 경기도에서는 팔구, 십 사흘동안에걸처 지방사회주사 현지연구회를 열기로되엇다 농촌진흥과 교육문제 농촌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에 걸처 연구할터이다

終幕가까운 中等籠球리그 徽新과京師有利

◀籠球=中等籠球리ー그…A部決勝…京師對徽文正戰 午後四時三十分 徽文小學코ー트(觀覽料十錢、學生五錢)

中東 49 (31 18…4 3) 7 徽文 (審判李文鎬、李文雄兩氏)
京師 43 (11 32…8 2) 10 龍中 (審判李文鎬、尹相鳳兩氏)
大東 20 (15 5…2 11) 13 協實 (審判李文鎬、金容武兩氏)
青學 26 (16 10…11 6) 16 培材 (審判李文鎬、鄭廣寅兩氏)

遞信再勝 對鐵道二回戰

京城實業野球春季리ー그戰 遞信對鐵道의 第二回戰은 八日午後四時三十分부터 京城球場에서 原口(球審)、花谷(壘)三氏審判아래 鐵道先攻으로開始한바 遞信은 六回에 決勝의 一點을너허 結局一對零으로 遞信軍이 再勝하엿다(閉戰六時二十分)

◀投捕=遞信鈴木ー的山 鐵道 東ー三村

遞信	000001000	1A	1A―0
鐵道	000000000	0	

李君日本新記錄作 關西中等陸上對抗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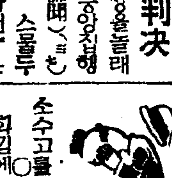
【甲子園電話同盟】關西學生陸上競技聯盟主催第十二回關西中等陸上對抗競技大會第二日(七日)의 競技에잇서서 中等部鐵棍決勝에 李永浩(京都鹽峰中學校)選手는 四十九米七十三(大會新記錄及中等日本新記錄)을 樹立하엿는데 이記錄은昭和十二年第八回東西中等對抗大會(甲子園)에 仁步與四(中京商業)가作成한 四十七米二十八을 二米以上이나더投擲한 超中等級의大記錄이다

最高는死刑

黑色갱事件判決

【東京電話同盟】한때 세상을놀래인 일본무정부공산당 중앙위원 식촌제문(植村諦聞)(三七)외원장 수리분와 외파단체 「흑색갱사건」은 등에관한 소위 팔일오전열시이십분 동경형사재판소에서 등산(藤山)재판장으로부터 다음과가티판결하엿다(괄호안은구형)

死刑(死刑) 中央執行委員 植村諦聞(三七)
懲役八年(未決通算七百日)(十年) 中央執行委員長 二見敏雄(三一)
同五年(未決通算七百日)(七年) 同 相澤尙夫(三一)
同五年(未決通算七百日)(五年) 入江汎(三二)
十二年(未決通算八百日)(十二年) 井上信一(二五)
同十年(未決通算八百日)(十年) 小林一信(三〇)
同二年(三年間執行猶豫)(二年間執行猶豫) 李東淳(三二)



자동차에도로 손상금밧는 규정이나온다지.

○

인명(人命)손상금징수규정도 나왓스면 재판소수고를 덜러인데……

○

회김에 자살이라! 성난거룩이 황천길을 뚜벅뚜벅걸어갈모양?

○

어물값지 얼어부텃다고 구매력(購買力)도 얼어부튼편?

今日 晴一時雲

廣告

◀五月九日(火曜)陰三月二十日 ◀壬午丙子 ◀日出午前五時三十一分 ◀日南中午後零時三十分 ◀日入午後七時二十九分 ◀月出午前八時五十八分 ◀月入午後八時四十五分 ◀滿潮(仁川)午前八時四十五分 午後八時四十五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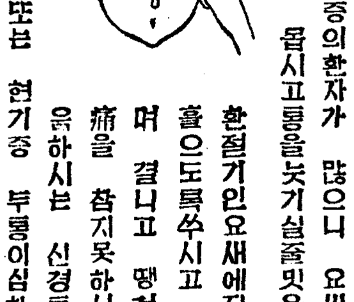
軍需産業으로轉換者는 電氣熔接技術을!

高等電氣熔接學校

신경통 류마지스

고통이심할때 응급치료가되나니 앞은곳·부은곳·쑤시는곳 멍든곳·피곤한곳에 조곰발느면 즉접 환부에 침투되야서 병근원의뿌리를곳빼버림으로써 무순약보다도속히낫는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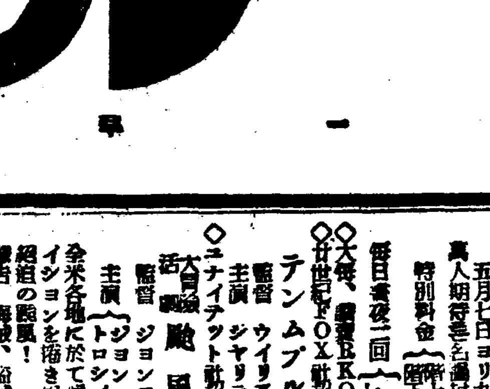
朝鮮은 大陸性氣候관계로 특히 神經痛 부롱 견비증의환자가 만흐니 요새와갓흔시절에는 몹시고통을늣기실줄밋습니다



환절기인요새에진땀이흘으도록쑤시고 아프며 결니고 땡겨서苦痛을 참지못하시고신음하시는 신경통 류마지스나 또는 현기증 두통이심하실때는 보통 內服藥이나 貼布藥을쓰시는분이게시나 이렁안때에 사로메지ー루를조곰발느시면 그런종류의약으로는 도저히 엇지못한즉효를 엇게되어 곤낫읍니다

그것은 직접환부에 작용하는약인까닭이니 아푼곳에 조곰 발느시고 살살문질느시면 藥効는 피부조직을통하야 근육심부에 침투되어서 病根原에까지 작용하는약임으로 그렁게 속히 고통에서 버서나시게하여줍니다

그러므로 本劑는 어느家庭에도 꼭必要한「家庭應急常備藥」으로써 호평을밧고 잇사오니 以上과같은 증세에 특효할뿐만아니라 피부가가려운병 頭痛 齒痛과 咽喉痛에 발느시면 殺菌 鎭痛 制痒의作用이强力함으로 한시도잇지못할약입니다



五十錢 一圓 二圓半 全道藥房에 잇읍니다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사로메치ー루

S.K.93

八、九日二日間限り 「ショウ」と映畫
タイヘイショウ
平和レコード專屬
沼津兵學校
家族一聯隊
各社ニュース
大陸劇場

五月七日ヨリ九日マデ 每日夜二回 一時、七時卅分
特別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ユニヴァサル作 西部活劇 熱砂の騎士 監督 アルバート・ローゲル 主演 トム・ミックス
◇東寶映畫特作 現代劇 忘られぬ瞳 監督 渡邊邦男 主演 岸井明、神田千鶴子
◇朝鮮映畫 第一回作品 朝鮮語全發聲日本版 無情 監督 朴基采 主演 韓銀珍、金信哉 李白水、李錦龍
次週=颶風(ハリケン) デンム グルハイテイ 乞期待
桃花劇場

今週映畫 五月八日ヨリ
東日大每 RKOパテーニュース
國映社提供 皇軍正義の空襲
新興キネマ社協同作品 나그네(旅路) 監督 李圭煥 鈴木重吉 合同監督 主演 王平・文藝峰・朴齊行
佛GFC超特作 榮光の道 監督 マルセル・レルビエ 主演 ケーテ・フォンナディ ピエール・リシャール・ウィルム
豫告 五月十四日ヨリ ジュリアンデュヴィヴィエ監督作品 望郷
五月十八日 ヘンリーキング監督作品 シカゴ
第一劇場

映畫는日活
八日より三日間
◇日活多摩川特作 伊賀山正德監督 女の世界 中野英治、黑田記代 石井美笑子
◇伊エムパイヤ社大作 フリードリッヒ・フェーカー 監督 盜賊交響樂 アレクサンドル・リニョオ マグダ・ソニー ハンス・フエーヤ 主演
◇日活京都特作 明るい音樂と樂しい物語の融合 池田富保監督 赤垣源藏 阪東妻三郞 花柳小菊 主演
各社ニュース
偕樂館

五月七日ヨリ九日マデ 眞人間待望名畫封切
特別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每日夜二回 一時、七時卅分始映
◇大每、東日、RKOパテーニュース
◇20世紀FOX社超特作 テンプル、ハイディ 主演 シャリー・テンプル
◇ユナイテッド社超特作 大颶風(ハリケン) 監督 ジョンフォード氏 主演 ジョン・ホール ドロシイ・ラムア
全米各地にて 橫映一大センセイションを捲き起した大驚異
豫告 絕頂の興奮! 海賊、盜賊交響樂 國民の誓 家族一聯隊 乞期待
新富座 電話光 五六七七

中部版

京畿道各郡의 社會主事會議

경기도에서는 각군사회주사이십명을 소집하고 팔일오전여덟시부터 도청제일회의실에서 현지연구회를열고 원사에부장등재로 농촌진흥운동실시상황과 지도방책에대하야 각군에서 제출한 사항을협의하엿다 그런데출석자일동은 회의를시작하기전에 먼저 조선신궁에 참배하엿다그리고 회의는 구일 십일 이틀동안 계속할터인데 구일오전중에는 양주군이담면농장의와 약진의 농지운동실시 상황을시찰할터이라한다

薰風五月新綠미테 壯觀이룬市民運動
七日、開城公設運動場에서

【開城】 개성 칠만부민의 체육명절로 손꼽아 고대하든 제이십회 시민대운동회는 고려청년회주최와 본사개성지국 후원아래 지난칠일 개성공설〃그라운드〃에서 성대한막이 열니엇다 오전아홉시 씨름들이 개인의 의아기라는 이곳으로 오전열시가되니까 운동장은 사람의 성을싸하노앗다 폭죽소리가 서너번 장안을 울려노차 삼시간에 장안 의아기들이 모혀들엇다 그래서 오전열시가되는 가운데 청년회 리사장 림병식(林炳植)씨의 개회사로 장엄한입장식을 마친후 경기는오전열한시경각 백미돌경주로부터시작되엿다 선수외에 일반관원들이지축까지 울리도록 힌차고씩씩하게 달리는광경은 실로쾌복바든 이들의 활동대와가티 보엿나 그런중 여자선수들이〃명낭기〃〃총돌기긴〃〃자전거타기〃등의경주는 여장부의씩씩한 기운을보히면서도 운동회의흥미를더욱 조상시킨바잇섯다 이날특기할사실은 금년십오세된 소년박금룡(朴今龍)군이 〃마라손〃에당선수를물리치고 히이착을한것이나 이외각경기종목중입상선수를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店員自轉車 【一組】一着金永熙 二着林允錫 三着李熙昌 【二組】一着金世鎬 二着金用熙 三着金世根

◇百米競走 【一組】一着姜永詰 二着李昌浩 三着閔庭完 【二組】一着李熙相 【三組】白上福

◇計算競走 一着文興祿 二着鄭大順 三着金永燮

◇二百米競走 【一組】一着玄明烈 二着梁熙相 三着朴龍鎬 【二組】一着梁根遠 二着趙寅烈 三着李聖浩

◇自轉車二十週 一着張仕漢 二着金用杓 三着尹世重

◇八百米競技 一着閔成基 二着金潤侠 三着趙寅烈

◇마라손(吹笛福往復) 一着張春興(五九分) 二着朴今龍(一時五分) 三着柳來永(一時九分) 四着李春教(一時一一分) 五着金基植(一時一三分)

◇三輪自轉車 一着金東祿 二着李丙濟 三着朴大運

◇女子競走 一着金蓮紅 二着金明玉 三着李慶喜

◇女子自轉車(三週) 一着金明玉 二着韓仲禮

◇自轉車三十週 一着車希燮 二着印相得 三着張往漢

◇各町리ー레 一着高麗町 二着京町 三着北本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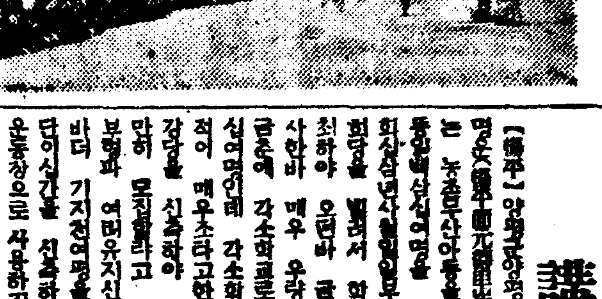
◇四百米競走 一着柳邦燮 二着朴龍鎬 三着宋景熙

◇五千米競走 一着王寶根(一八分二六秒) 二着張春興 三着申乾鎬

◇團體리ー레 一着活命館 二着開城府廳 三着開城體育協會

◇千五百米競技 一着閔成基 二着金潤侠 三着李慶眞

◇自轉車四十週 一着具然興 二着車希燮 三着林東錫



(사진은 대운동회광경)

元德學術講習會 講堂을新築擴張

【楊平】 양평군양동면원덕리 원덕학술강습회(元德學術講習會)에서는 농촌무산아동을 위하야 이십여명을 모집하야 원덕리공회당을 빌려서 교육을하여오든바 금년에는 학생이 매우 만하지고 원덕리 일반의 신축하기로한다 ……

安城邑會員選擧 白熱化한逐鹿戰

【安城】 안성읍회의원선거 정원이십명에 이미 의원중 현의원 재출마 외에 새로운 입후보자가 속속 나타나게되어 선거전은 점점 백열화하여간다 ……

▲金台榮▲朴常業▲朴容寅▲金順宗▲金鍾浩▲朴容觀▲尹在喆▲鄭殷業▲李顯稷▲李有成▲李梅泳▲市山直備▲林官相▲尹喆鬪▲吳鳳根▲金壽獻

蘇萊面議員立候補 六日現在七名屆出

【蘇萊】 소래면의원정원구명에 대하야 지난육일현재 입후보자는 다음과갓다

金東一(新) 金周勳(新) 倉本好吉(現) 湯淺子(現) 金月龍(新) 李順榮(現) 李益信(現)

勞働者寄宿舍에 發疹티프스發生
金浦陽西面工事場에서

【金浦】 부천군오정면오곡리(富川郡吾丁面梧谷里)와 권태영(權泰永)방에 기숙하고잇는 로동자중에서 발진티프스환자가 발생되엿다는데 그로동자들은모두 김포군양서면(陽西面)등공사장에서 로동에 종사하고잇는자이다 그공사장에는 근로보국단기라입부가 약 천여명이나잇는곳에서 이와가튼 전염병환자가 발생되여 김포경찰서에서는 대경실색하야 경찰부로급히보고를 하는일방방역에 철저를 기하기로되엿다

面協議會員選擧戰에 素砂面은立候補一名

【富川】 부천군내각면에 면협의회의원 선거 이사명을 보선하엿는데 당선된 사인은 아래와갓다

李有成 李雲淳 金學洙 鄭寅紹

冠岳山綠化民營 砂防組合役員會
六日、始興郡會議室에서

【永登浦】 시흥군 소화십사년도 관악산 록화민영사방조합의원회(冠岳山綠化民營砂防組合役員會)는 지난육일오전열한시부터 동군회의실에서 경기도산림과 장이하 평의원 각방면관계자삼십여명이 참집하야

一、昭和十四年度收入支出豫算의件
二、林野保護取締에關한件
三、顧問推戴의件
四、登山道路開鑿의件

등을심의하고 동오후두시경에무사페회하엿다

安城邑內小學父兄會 五百圓缺損問題解決

【安城】 안성읍내 신상소학교 부형회에서는 지난육일오전십일시부터 동교강당에서 총회를개최하엿는데 안성도서관에 대부한오백원문제로 기왕간부 측사직중이든바 금번총회에서 결론처분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간부사직원도 반환한후 원만하게 순서에따라서 진행한후 결원인 명이 하엿다

會頭에는深見氏 副會頭에直野氏當選
問題만흔仁川商議投票結果

【仁川支局電話】 길전회두가사임한후 부회두까지업는 인천상공회의소의회두와부회두 호선문제는 그동안여러가지로 파란이중첩하엿섯다 그러데 그최후의결정을하기로된 의원총회는 예정대로 팔일오후세시부터 동회의실에서 이십오명의원이 출석하야 선거투표를하엿다 그결과심견인지(深見寅市)씨가 열다섯표의최고점으로 당선되고 차점자는 김태훈(金泰勳)씨여덟표를어덧슬뿐이다 계속하야 부회두의선거투표를하엿는데 직야양통(直野良通)씨가 십팔표를어고 금정가삼(今井甕三)씨는 차점자이다 그리하야 회두 심견씨는 직석에서 문제업시 부회두에 당선되엇스나 양통씨는 여러가지의 착잡한사정으로 할미아마 보류하고 구일에 다시진행하야 결정하기로하고 폐회하엿다

府議員選擧戰으로 세월만난印刷所
仁川은定員에二名超過

【仁川】 인천부회의원 개선거일이 도압호로 일주일남짓밧게 아니남엇는데 정원은삼십삼명에 벌써두사람의 초과를 보게되자후보자들은 매년에해오던 운동방식의하나인 호별방문이 격지되자 이에전화와 서면전이 맹렬히버러지게되므로 이에인천부내의 십사개소인쇄소에는 명함인사장 등을 주문장활하여서 인쇄소들의 홍수를만나 일대호경기를보이고잇다 요사이 부내각인쇄소에서는 공휴일도업시 추야롤검하야 일을하여도 눈코를뜨지못하고 잇다하며 십사개소인쇄소의 직공이백삼십여명은 잠을못자게되어 매일교대로일을하게된다는 인쇄계에 일대호황판이전개되어 부의원후보덕분에인쇄소가 득세를하고잇다

一滴千金의甘雨 農家의憂慮一掃

【安城】 경기도안성지방에는 근일한재가심하야 못자리(苗代)는 수량부족으로 농가의 우려가심하더니 지난오일부터 적당한비가내려서 못자리도 수량이넉넉하며 특히보리에는 여지못할비인고로 보리는 근년에드문 대풍을 예상하고잇다

開城

蝀龍窟探勝團員募集

時日	五月十三日午前一時
會費	十六圓
申請期日	五月十一日까지
募集人員	三十名限定
探勝코쓰	蝀龍窟 藥山東臺 妙香山 大同江船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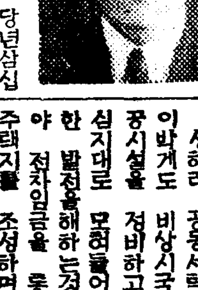
主催 朝鮮日報社開城支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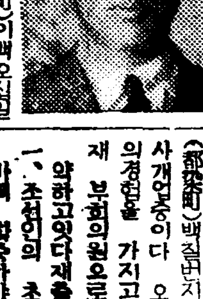
府議選擧를압두고 立候補者와그들의公約 ①
京城篇

오는 이십일일의 총 개선날을아페두고 지금조선의십사부、유십팔군 이천이백십이면의 부읍회의원 、면협의회원 입후보자들은 선거전을 전개하고잇다 오만대경성 칠십만의 대변자가 되어 신선한 부정단상에서 부민의 복리증진을 부르지즈려는 투사는 팔일까지에 팔십칠명으로 그들은 유식구와 석을다투어 지금 문서전으로맹렬한 운동을 전개하고잇다 그러면그들은 파면무엇을 부민에게 공약하고잇는가? 조선인입후보자의 약력과 정견을 초하야 유권자제씨와 일반부민의참고로 드리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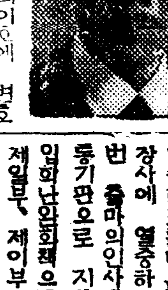
▲楊潤植氏(四二)씨는 서린정(瑞麟町)일백이십번지에서 호사개업을하고잇는데 당년삼십팔세의 한참일할때이다 전에도 부정단상을 노린일이잇는이로써 이번이출보하면서 부민에게 공약하는 정견을보면

해마다 십배이십배에달하는 중학교입학난을 완화하기위하야 부립중학을만들라 세민층의 금융기관으로 지금두개박게업는 공익전당포를증설하라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하는대책으로는 부영 주택을대량증설하라 전념병도시경성의 누





▲韓相喆氏(四三)현부회의원으로신당정(新堂町)이백오십일번지에 거주하며 조선회재해상 명을 벗기위하야서도 하루바삐 청계천 암거(暗渠)를 암설하라 공동세탁장을 만들라 이밧게도 비상시국에대하야 방공시설을 정비하고 사람들이도심지대로 모혀들어 부세의균등한 발전을해하는것을 모기위하야 전차임금을 통일하야 판외주택지를 조성하며 정회비부담을 가볍게하라는등 루지만만한 〃스로ー간〃을 내걸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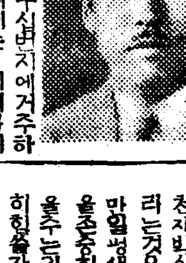
▲李弘鍾氏(五〇) 도념정(都染町)백칠번지의이으에 변호사개업중이다 오래동안 사법관의경험을 가지고잇는이로서 현재 부회의원으로서도 상당히활약하고잇다재출마 원의공약으로는

一、조선인의 초등교육을 하루바삐 확충하야 조선에만 특유한 소화교정의학정이 업도록하라

一、생산도시로 발전하는 방법으로부민에게 가정공업을 적극장려하라

一、사회사업을 확충하야 빈민구제에 선의를다하라

는것을 부르짓고잇다



▲李相殷氏(三六) 청엽정(青葉町)이정목구십번지에거주하며중학교를나온뒤에는 이때까지 장사에 열중하고잇는이로서 첫번 출마의인사로는 고속도 교통기관으로 지하전차를 만들것 입학난완화책으로 부립중학설치 제일부、제이부 특별경제를 일반경제에 합처서 조선인교육비부담을덜더라 직업소개소를 확충하라빈민들의 오락인 하수도암거를철리하라는것을 들고잇다

▲盧聖鉉氏(四二) 죽첨정(竹添町)이정목백십칠번지에거주하며 화령은소화교총영반이나이

보험회사에 근무중이다 파거부회에서도 조선의수도이요 대륙전진의 병참기지로서의 경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는이로서 재출마의 정견으로는 좌기각항을들고잇다

一、공유지설을 확충하야 입학난을 완화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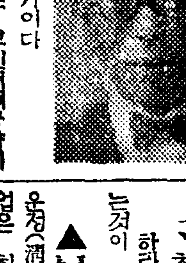
一、사회사업시설을 완비하야세궁민구제를 철저히할것

一、산업정책을 세워 소비도시에서 산업도시로발전하도록 지도장려할것

一、부제에완전한자치제를촉진할것

一、체육관을설치하며 체육운동

태각종사업에편하야 지금은 면목、직물、미곡、신탄장사를 하고잇은 노력가이다 천재박식으로 부민에게공약이라는것은주재념은일이외다 다만일평생의성심으로 책임관념을존중히하야 부민에게 행복을주는길이라면 무엇이나충실히힘쓸각오라는것밧게업습니다 라고결의를 피력하고잇다



▲朴勝城氏(五一) 관철정이백사십칠번지의일동에서 대서업을하며현부회의원이다

▲曺秉相氏(四九) 청운정(清雲町)백팔번지에살며 직업은 회사원이나 공직이 본업이라고 하야도 파언이 아닐만큼 만흔 공직을 가지고 잇다 부협의원때부터 부정에 참여하야 현재부회의원이요 경기도회의원도 두번째지금 활동중이다 세제(稅制)균등 사회사업확충강화、완전한 자치에의 촉진을 내걸고 잇는데 부회에서 하는 질문은 다변이나 논지도 철저하고 상당한 열변으로 이름이 잇다

를 통제강화하야 부민의체위향상에 힘쓰며 위생도시건설에힘씀

一、사회사업을 확충하라

一、초등교육기관을 확충완비하라

는것이 그의정견이다

(계속)

日의 丸 あけぼの印 カニ罐詰
体位向上! 잇지마라 慰問에 御家庭에!

朝鮮家庭醫學全書大人氣 朝光・女性・少年三大雜誌 六月號 來十五日發賣 定價 二、五〇 送料 三〇

宿醉 ノーシン

短篇小說

바다로간다 (6)

金南天 作 鄭玄雄 畵

二、新綠과綠陰(二)

아무러케나 지갑겨 쓰고 십지는 안헛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적어보내면 조홀까. 생각다 못해 간략히 이러케 적어 보앗다.

—어젯밤은 실례 만헛습니다 약속한대로 삼을 댓뿌리 보내오나 너무 약소해서 되려 부끄럽습니다. 잘기 잘기 끈허서 홍진하게 대려서 그물을 잡수시면 속히 핫철 가실까 하나이다.—

이러케 한줄을 더 덧달어 부첫다.

—이처럼 날씨가 조흥신데 머리를 알흐실까 생각 하오니 우울하기 짝이 업습니다.— 영자.—

싸노코 다시 읽어 보면서 영자는 빙그레 웃어 보앗다.

(내가 뭐 연애를 허구잇는가)

하고 머리를 살랑 살랑 흔들어 보앗스나 봉투지에 삼과 편

대체 갑분하한 어떤 부류의 청년인지 알수가업다. 만나서 헤여지기까지 단 두시간 그는 (이청년의 직업이 무얼까) 하고 누구에게나 한번은 겨누워보던 그러생각까지 먹어볼겨를을 주지안케 주접부리를 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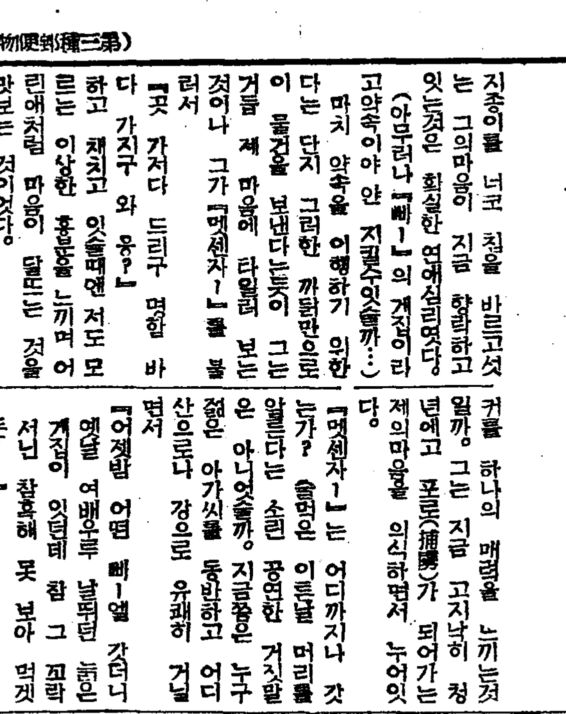
입심은 상당한 녀석이다. 만히 놀아본 녀석갓다.

그러나 그는 이것만 가지고는 남을 속단하지 못한다.

주접부리대고 떠들고 발발하고—그것은 요즘 청년들의특징이 아닐까.

하여튼 그와 지껄이던것을생각해보고 그리고 지금 그가재의 여배 업는것을 생각하면어떤가 방안이 빈것 갓고 지내치리만치 허전하다.

탄력잇는 팽팽한 청년의 육체 표한한 얼골 생긴새 어떤가. 표범가튼 인상을 남기는 민첩한맛—그러한것에 자기의원숙하야 어미 타령이 업서지려는 육체는 정신적이라고도 일



지종이를 너코 침을 바르고섯는 그의마음이 지금 향락하고잇는것은 확실한 연애심리엇다.

(아무러나 『빠—』의 계집이라고약속이야 안 지킬수잇슬까…)

마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다는 단지 그러한 까닭만으로 이 물건을 보낸다는듯이 그는 거듭 제 마음에 타일러 보는것이나 그가 『메센자—』를 불러서

『곳 가저다 드리구 와 응?』

하고 채치고 잇슬때엔 저도 모르는 이상한 홍분을 느끼며 어린애처럼 마음이 달뜨는 것을 맛보는 것이엇다.

그는 아침도 먹지 안코 낫도 씻지 안코 옷도 갈아 입지 안코 다시 침대우에 누어 보앗다. 제 가슴우에 두손을 올려 노코 창문에서 숨여 드는 초여름의 맑은향기를 가슴뜨록이 담아본다. 담앗던 공기를내뿜어본다. 눈을 거듭떠보면 맑은하늘이 보힌다.

추억에 살고 십지 안타.—영자의 일상생활의 표어다 그러나 그것이 다치오는 어떤 알지 못하는 행복감을 거부하는 어유로는 되지 못할것이 아닌가. 그것이 행복일지 아닐지를 누가 알수잇스랴. 그러나 —만나서 질검고 떨어저선 더욱질거운—그러한 경지 그것까지거부하면서 설혼세살의 봄을 그대로 무더운 여름파 바꾸어버리고 십지는 안헛다.

커를 하나의 매력을 느끼는것일까. 그는 지금 고지낙히 청년에고 포로(捕虜)가 되어가는 제의마음을 의식하면서 누어잇다.

『메센자—』는 어디까지나 갓는가? 술먹은 이튼날 머리를 알른다는 소린 공연한 거짓말은 아니엇슬까. 지금쯤은 누구 젊은 아가씨를 동반하고 어디 산으로나 강으로 유쾌히 거닐면서

『어젯밤 어떤 빠—엘 갓더니 예쁜 여배우루 날뛰던 늙은 계집이 잇던데 참 그 꼬락서닌 참혹해 못 보아 먹겟든……』

이러면서 내 흉을 보고 잇는거나 아닐까.

그러케 되엇스면 몰골이 조롱하라고 픽 웃어 본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낫다. 얼굴이나 닥고 간단히 아침이라도 먹고 그리고 아이놈이 돌아오길 기다려 보자.

(그까지껏 잇겟스면 잇수 업겟스면 업구……)

수도를 비틀어 물을 밧는데 똥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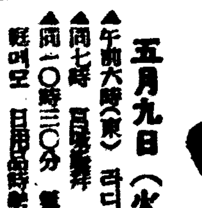
『녹크』 소리가 난다. 신부름간 아이가 돌아오긴 너무이르다.

또다시 『녹크』 소리.

그는 물묻은손을 수건에 닥고 열쇠를 비틀어 문을열엇다

『언니 인제 일어나우?』

하고 나타난것은 가벼운조선옷에 갸름하게 웃는 귀여운 몽자이다



라디오프로

五月九日(火)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同七時 [illegible]
▲同一〇時三〇分 [illegible]
▲正午(東) 時報
▲午後零時五分 歌謠曲(레코—드)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illegible]
▲同四時 뉴—스 [illegible]
▲同四時三〇分 [illegible]野球實況 —京城球場—●但次試合이잇슬때만
▲同六時 하—모니카合奏와獨奏 1、合奏 아침 小田島樹人作曲 2、二重奏 키스메트 마—커作曲 3、合奏 國境의夜 古賀政男作曲 4、獨奏 歌劇「카르멘」中에서 비제—作曲 5、合奏 노래의手帖(民謠曲)合奏
▲同六時二五分 [illegible] 어린이[illegible]
▲同六時三〇分 [illegible]「[illegible]이야기」[illegible] 李 [illegible]
▲同六時三〇分 [illegible]「[illegible]이야기」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illegible] 金 光 [illegible]
▲同八時 [illegible] 一、[illegible] 二、[illegible] 歌手 李 秋 月
▲同八時三〇分 [illegible] 夜光珠
▲九時 [illegible] 一、[illegible] 二、[illegible] 四、[illegible] 五、노래가락 [illegible] 李 [illegible] 玉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illegible] 明日[illegible]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illegible] (三一) 金 [illegible]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illegible] ▲同一一時(大)小學生時間(東)[illegible] ▲午後零時五分(東)[illegible] ▲同二時(京)小學生時間(東)[illegible] ▲同三時(東)[illegible] ▲同三時 婦人時間(東)[illegible] ▲同六時(東)[illegible](八) ▲六時二五分(東)[illegible] ▲同七時三〇分(大)[illegible] ▲同八時(大)[illegible] ▲同八時四〇分(東)靑年時間 ▲同九時(東)[illegible]라디오小說

푸른水波는부른다! 太公望의三昧境 打診

낙시때를두기는季節의感觸

斯界의大家 尹愼榮氏談(上)

오락과취미에도 가지각색이지마는 근년에와서는 낙시질도 대유행을 하고잇다. 더욱이 요즘은 낙시질의『씨즌』으로는 가장조흔때인가 시프다. 물도맑고 하늘도 회창하고 햇볏도 쨍쨍한데 낙시대를 메이고 한강으로나 교외의 저수지(貯水池)나 웅덩이에나 가는취미도 그윽하다고 할수잇다. 도회지의 망조(狂躁)속에서 시달리는 근대인의 오락으로도 권하고십다. 낙싯대를들고 잇스면 모든근심걱정을 버리고 삼매경(三昧境)에 들어가 그날울슬수 잇기때문이다.

▼—▲

성질이 조급한사람에게는 더욱이 조흔수양도된다.

대개낙시질을 처음으로하는사람은 한곳에 발을붙이지못하고 자리만옮기기가일수다. 맨처음에

—장소—를선택할때에 조사가 필요하지 주밀한 연구와 잘으면 조해서는 일단 자리를 서안된다. 하루를 자리만 옮기다마는 사람이 대단히만타. 어와가튼점은 차츰 낙시질에 연단이생기면 알만 조급한사람이라도 고처지며 관찰(觀察)도주밀하야지며 정신통일도 잘된다.

▼—▲

대개 낙시질꾼의 목표는 —붕어와잉어— 그라할수잇지마는 잉어에만 한하여도 여러조류가만허 이루설명할수가업다. 큰놈은 사척오촌을넘나드는것까지 잇지마는 지금도

어런것이 잡히면 용(龍)이될 고기라하야 끔게 노하주는사람이 잇는것은 옛이야기갓다. 잉어가 가장조하하기는 보리밥과 들깨묵이며 동물질은 조하하지 안흐므로 지렁이나 구데기로는 잡지를못한다. 이제조금지나면 음력사월그름에서 오월초순까지 알을낫는데 그뒤에서 갑자기 식욕이 느는모양으로

—잔조개—를 잘어먹는다. 흔히 잉어는 이가업는줄알지마는 목구멍기뜨곳에 커다란이가 네게나 잇서 껍질을깨물어먹는다. 잉어는 송장을먹는다고하는것도 아마 잉어를잘며노한던니 어가나 오자 그것을 사람의어로 잘못알고 그러케 퍼친이야기나 아닐까.

무슨고기나 고기를 잡으려면

는 미끼도며까지지마는 고기의 식욕을 도돕는

—수온—(水溫)도 중요하다. 고기는 물의온도가 섭씨(攝氏)[illegible]서하여야된다. 오도에서 십도사이에 가장잘먹는것은 주둥이[illegible]. 동풍이불면 [illegible] 물지를안는다고하며 저문도 전기예보에 동풍이분다고하면 고기잡이는 글렀다고하는것도 찬동풍이불면 물이차서 고기가기픈곳에 들어가 나오지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 바다로 상복더위에는 되도록

—동풍—가 어물어야 고기가 잘잡힌다.

▼—▲

붕어는 깨묵과 된장을 조하하는데 대체로 고기는

—염분—(鹽分)을 요구하는데이러 맑은물에 낙시를 놓으러며는 된장을서꺼주는것이 조타. 그러나

조수(潮水)는가 형수에서는 염분을 주어서는 외려실패어다. 영등포(永登浦)에서 어천(川)가는 『뻐스』로가면

—구로리—(九老里)는 사람이 가봉의저수지(貯水池)가잇서 고기잡이에 숙련한사람은 그곳으로만모이는데 그곳에서 그역시 미끼를잡는다고

—동양방적—(東洋紡績)에서 저 뒤로한참가서잇는 연못에서는 번가튼미끼로 고기를 잡으려다가는 한놈도 잡지못할것이다. 그것은 이곳물은 빠질곳은 업는데 하수도(下水道)물파 오것이 내려와 자연적으로 기는실충이 나오기때문이다 (사진은 낙시도랍을 이야기하는尹氏)

奇珍百集

밤낫을바꾸어사는老人

『런던』에서 밤낫을 분간치못하고 바꾸어살던 노인이 최근에 사망하엿다. 이 이상야릇한노인은 이름을 『죠—지·스마—트』라 하는데 어린애적에 한번은 머리를 다치고 도리어 반동이되어 나빠저서 겨우 어두운곳에서만 물건을 볼수잇게되자 드디어 낫동안의생활을 단별하고 밤만생활하게되어잇다한다 그래서 저녁에 조반을먹고 밤중에점심을먹고서 아침에 잠자리에들기로 결정하고 조반후에 산보를 자가용자동차를타고 밤거리를 돌고잇섯다. 최근영국에서 농사를에편한 전람회가게최되엇슬때에도 당국자는 노인을위하야 특히 밤에도문을열고 밤과낫을 바꾸어사는 노인을 만코 두뇌도 대단히 조흐며 음악의 취미도 각별한 다능한 노인으로 인끼가잇섯던것이다

凸問凹答

【問】광산『뿌로커—』까지화약(火藥)은해서 뭣하누。

前回의【問】봄비도 참말비인가

同【答】춘우(春雨)는 비비(霏霏)틀림업지。

東西監督 ●平行記● (4)

運命의아들

金幽影과 "스탄버"

★…운명파작우는 두영화인 조선에 김유영(金幽影)씨가 잇고 서양에 『스탄버』이 잇다

예술가운데 괴편이라는 세계를 무시하리만큼 영화작품속에 자기의운명을 그대로표현하라는 맹렬한의욕을 가진감독으로『스탄버』이상 갈사람은 아마 그리만치는 못할것이다 시대에 반역하기보다도 가혹하게 자기자신의 성격적운명을 처치하고 거기서 자신의구원을 차즈려고 무언의비극을 연출하는『스탄버』—그가『구원을찾는 무리들』—버릇하야 『모로코』이후의 작품에서 우리는『스탄버』자신의 비장한 인간기록을 읽엇다

★…그러나 김씨에 잇서서는 부형이랄까 김씨자신의 운명과부닥처 그를 예술화하는 기회가 오래중단되어섯다 비평하는 유태인의 운명은 반드시 배극만이 아니엇스나 『스탄버』는 드디어 자신의운명을 지배할수잇슬만큼 상실당하고 스산한운명의 추방아(追放兒)가되어 그의그림자는 비오는 어서울의거리까지를 숫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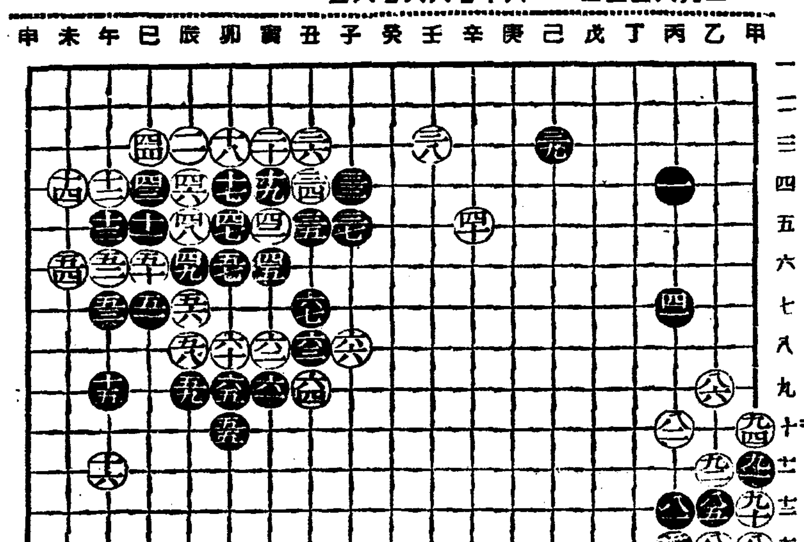
★…김씨자신은 자신의운명에반역하야 거기에하나의 폭위를내려서까지 차워어기라는 의욕에불탓건만 현실은 반드시그를 온순히 바다드리지못하는것이니 여기불우의 영화인중 한사람으로 김씨를드는것은 그리 지나친잘못은 아닐것도갓다 『유랑』(流浪)『화륜』(火輪)등 어작품들에어떠한성과를 벗어주엇는가를 다시생각해보면 영화인김씨의운명파함께 인생맥는바가 엇지도안타

★…총제를입혼 정열은 청춘의기밥을 상실하파동시에 쇠퇴가오기쉬다 김씨는 자신의더 냉정한통제와 압축되어 결성된 새로운 의지로써 영화의길을개척하지안는다면 씨는또 한『스탄버』와 더부러 불우의 운명아가 되지안흘까 우리는 씨의 더큰조리잇는 비약을기대하며 애련(愛種)을 개봉될날을 기달린다(鷗浪生)

☆ ☆ ☆ ☆ ☆ ☆ ☆

陽春素人對碁戰 =【7】=

白 鄭漢采
黑(先) 張遇冕



●八五 乙의十二
○八六 乙의九
●八七 甲의十六
○八八 甲의十三
●八九 甲의十五
○九〇 甲의十二
●九一 甲의十一
○九二 乙의十一
●九三 乙의十六
○九四 甲의十
●九五 辛의十七
○九六 辛의十六
●九七 壬의十六
○九八 壬의十七
●九九 庚의十六
○一〇〇 辛의十五

觀戰評……權秉郁

右邊交換兵火로 白軍이玉石俱焚

天有不測風雲이라드니 果然蒼局을든고이를이다? 黑八五은 變通업는匪着이저—白軍을湧出으로 威脅하고外勢를强化한다 白八六이乙의九로突立하는 有何意味오 이는반드시俗手가아니면 失手이다 此反映으로因하야前日右隅汗血之功을모두東風杜宇聲으로化하야보내고長吁할따름? 原則的으로말하면甲의一三이正解이다。黑八七은時機를잘利用하야 白腹에先置中하니 참妙味가潛流한듯? 白八八은 이제야延立하나 晩時之感이잇슬뿐、또先後手가 倒錯하여到底히全軍救活은 不能이다。黑八九로白九四까지는 따라相持格으로、衝入走去、受、攻、反攻、越打、여러가지形形色色으로 奇奇妙妙한捌捌變幻術이막소다저나와 참으로滋味가一層더하다——然이나此交換兵火에는 白이先手까지失하고보니 이른바 火炎崑崗에玉石俱焚이아닌가가——黑九五은 當然順風에棹를달아西中部로向하야 白一兵을犧牲하니이는妙手로推稱한다。白九六은 無奈何로應戰을決하고 黑項點을緊接한다 黑九七과白九八은다시短兵戰을列하는 序曲으로、黑九九재치고白百은 中央으로前進하야모든不意의風雲을 晩起할米分이顯溢하다——春日一刻을애끼지말고 珍玩할진제—

世界最良가루우유

森永ドライミルク 하는 愛兒를토실토실살찌게

新生兒 體重은처음에는生理的으로 減하나、十日쯤이면 恢復된다 味覺은처음부터 잇서서 「드라이밀크」가튼것을주면조와합니다

體重은 發育良否의 標示計이다 發育이 順調로우면 每日體重이 增加합니다 森永드라이밀크는 營養價가 第一조흐므로 消化가 잘되어 乳兒가 살이 포동포동하게됩니다

一個月 一個月쯤되면는 每日三〇瓦의增加가조흔發育 잠을[illegible]한다

드라이밀크와 森永滋養糖 三時間마다 一日六回

二個月 體重每日二五瓦平均增加 웃기始作한다 작구다리를빼동거린다

三個月 體重은 每日二五瓦增加 어머니얼굴을 알어보고 눈을떼어운다

드라이밀크와森永滋養糖 四時間마다一日五回

四個月 體重增加는每日二三瓦平均 體重은 낫슬때의 二倍가된다 목을가누게된다

드라이밀크와 白砂糖 미음 果汁을준다

五個月 體重은每日二〇瓦의增加 안어주면다리를버둥거리고조와한다

六個月 體重은每日一七瓦增加한다 말을하려고하고發育이조흔애기는이가나기始作한다

七個月 體重은每日一五瓦의平均增加

드라이밀크·白砂糖·미음·野菜스—프·드라이밀크를 푼죽을준다

八個月 體重은每日一三瓦의平均增加 겨우기기始作한다

드라이밀크·白砂糖·미음죽·野菜 흠신끄린卵黃죽

九個月 體重은每日一二瓦의平均增加 부뜰고 이러서게된다

十個月 一日一二瓦平均의 體重增加 창을짓고조화한다

十一個月 一日一一瓦平均의 體重增加 혼자 이러선다

滿一個年 一日一〇瓦平均의 體重增加 혼자거러다닌다

森永煉乳株式會社

라이온치마

ライオン齒磨

虫齒豫防에는 라이온이第一!

라이온치마는

● 口中의細菌을 吸着除去하는殺菌·淸掃力이 强하며

● 그香味가 또한 淸新·優雅하며

● 使用感이 爽快無比하므로

虫齒와齒槽膿漏를 徹底的으로 豫防하며 어린애들이라도 실증내지않고 每日 使用하기쉽니다。

라이온치마本舖

株式會社 小林商店